# "사람 위한 AI 만들겠다… 카카오 개발자 생태계 조성"

**카카오 개발자회의 'if 카카오'**

**명령어 인식 실패율 절반으로⬇**
**AI 기술 자동차·집으로 확장**
**개발자 커뮤니티 중요성 강조**

4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카카오 개발자 컨퍼런스 if kakao에서 카카오 김병학 AI 랩 부문 총괄 부사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카카오

카카오가 'AI(인공지능)'를 기술적 화두로 잡고 '사용자 가치'를 우선하는 기술 개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카카오 김병학 AI 총괄 부사장은 4일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카카오 개발자 컨퍼런스 'if kakao(이프 카카오) 2018'의 기조연설에서 "카카오는 AI에 사활을 건 투자를 시작했고, 작년에는 '카카오i(아이)'라는 AI 플랫폼과 인공지능 스피커 '카카오미니'를 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미니의 성장은 곧 카카오 아이의 성장을 뜻하는데 카카오미니는 끊임없이 기술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출시된 카카오미니는 출시된 지 약 7개월 만에 준비 물량 20만대를 소진하는 성과를 보였다. 오는 10일 후속 모델인 '카카오미니C'의 판매를 앞두고 있다.

카카오미니의 기술적 성과는 데이터의 축적과 학습을 통한 AI 기술 전반의 고도화를 이뤘다는 점이다. 카카오미니 출시 후 6개월 동안 2억 건 이상의 발화가 입력됐으며 카카오는 이를 음성인식과 대화처리 등 핵심 AI 엔진의 학습에 사용해, 대화처리엔진의 핵심인 자연어 이해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또 카카오미니를 통해 들어오는 특이한 음성 명령수는 하루 30만 개 이상으로 카카오는 이 발화들을 학습해 진화한다.

김 부사장은 "사용자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명령어 인식 실패율은 출시 초기 약 12%였으나 지금은 6%이하로 낮아졌다"고 말했다.

발전을 거듭해온 카카오의 AI 기술은 앞으로 사용자 가치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다. 사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는 뜻이다. 카카오 신정환 CTO(최고기술경영자)는 "카카오는 사용자 가치를 만드는 기술에 집중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의 개발자는 기술을 만들고 적용함에 있어 기술적 우수성이 아닌 기술이 사용자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좀 더 집중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카카오는 AI 기술을 '자동차'와 '집'으로 확장한다.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환경에서 AI 기술을 통해 안전성을 높일 수 있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인 집에서는 편리한 사용자 경험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카카오는 현대자동차와 강력한 동반관계를 구축하고 카카오 i 인사이드 차량을 개발 중에 있다. 김병학 부사장은 "현재 개발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고 내년 출시되는 차량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차량에 카카오 AI 기술이 적용되면 운전자는 "에어컨 아래 바람으로 틀어줘" "운전할 때 듣기 좋은 노래 틀어줘" "새로 온 카톡 읽어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집에서는 조명, 난방, 환기, 가전을 카카오 i로 제어할 수 있게 된다. 카카오는 현재 GS건설, 포스코 건설과 함께 아파트에서 작동하는 카카오 i를 구축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의 일부 아파트에선 이미 작동하고 있다.

또한 카카오는 사물인터넷(IoT) 플랫폼 카카오홈 서비스를 하반기 중 출시할 예정이다. 카카오홈을 통해 아파트의 가전과 기타 설비 등을 손쉽게 연결하고 제어할 수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홈을 통해 아파트 가전뿐 아니라 단독주택 등 모든 환경과 기기를 제어할 수 있도록 확장할 계획이다.

개발자 커뮤니티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신정환 CTO는 "카카오는 많은 개발자들과 함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개발자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함께 성장하는 세상을 꿈꾼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이번 행사인 이프 카카오뿐 아니라 각 분야별 전문 컨퍼런스도 준비하고 있다. 카카오는 제주에서 이미 블록체인 컨퍼런스를 진행했고 AI, 핀테크 관련 행사도 준비 중이다. 기술 공유와 개발자 후원활동도 지속할 예정이다.

한편 카카오는 자사의 첫 개발자회의인 이프 카카오 2018를 통해 인공지능, 메신저, 택시, 결제·송금, 검색 등 카카오의 기술과 노하우를 외부와 공유했다. 신정환 CTO와 김병학 AI 랩 총괄 부사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카카오의 현직 개발자들이 인공지능, 머신러닝, 멀티미디어 처리, 챗봇, 클라우드, 오픈소스, 추천 등 27개의 다양한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지난달 10일부터 6일간 1만여 명이 신청했으며 이번 개발자 컨퍼런스에는 추첨을 통해 선발된 2000명이 참석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 온로드까지 친절해진 '오프로드 강자'

YG의 카톡 car talk

**지프 '랭글러'**

**다양한 편의 기능 탑재**
**온로드 부드러운 주행**

지프 올 뉴 랭글러 오프로드 주행모습.

지프의 '랭글러'가 11년 만에 풀체인지를 통해 새롭게 돌아왔다.

그동안 랭글러는 거칠고 투박한 오프로드에서 드라이브를 즐기는 남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돌아온 '올 뉴 랭글러'는 강력한 주행 성능을 더욱 강화하면서도 새롭게 향상된 기능을 대거 적용해 한층 친절해졌다. 여성 운전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매력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어 '랭글러는 불친절하다'는 편견도 허물기에 충분했다.

최근 FCA코리아가 평창 흥정계곡에서 진행한 '올 뉴 랭글러' 출시 행사에 참석해 차량의 주행성능은 물론 다양한 편의 기능을 체험했다.

외관은 랭글러 특유의 강렬함을 담고 있지만 기존 모델의 투박함은 벗어버리고 세련미를 더했다. 7슬롯 라디에이터 그릴과 키스톤 모양의 그릴 윗부분, 아이코닉한 원형 헤드램프, 사각 테일램프의 고유 디자인 요소를 유지함과 동시에 모던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루비콘과 사하라 트림에는 LED 헤드램프와 안개등, 방향지시등이 적용된다.

이 두 모델에는 헤드라이트의 바깥 둘레를 감싸는 광륜 형태의 주간주행등이 장착돼 있으며 LED 전방 방향 지시등이 사다리꼴의 휠 플레어 앞쪽에 자리잡고 있다. 후면에는 전통적인 사각테일 램프가 LED 라이팅을 선사한다.

올 뉴 랭글러의 친절함은 실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안드로이드 오토·애플 카플레이 및 블루투스 통합 음성명령 기능을 포함한 차세대 유커넥트 시스템으로 연결성과 편의성을 강화했다.

여기에 안전 및 주행 보조 기술도 탑재됐다. 기존 모델에 적용됐던 크루즈 컨트롤, 전자 제어 전복 방지(ERM), 내리막 주행 제어 장치(HDC)와 함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루비콘과 사하라 모델에 새롭게 적용된 사각지대 모니터링 시스템, 후방 교행 모니터링 시스템 등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운전자가 차량을 손쉽게 통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날 시승코스는 휴대전화 신호조차 잡히지 않는 흥정계곡을 따라 와인딩 온로드, 오프로드 업 힐, 락 크롤링(Rock-Crawling), 다운 힐 코스로 구성된 12㎞ 왕복 구간에서 진행됐다. 시승구간 도중에 돌, 자갈, 물 등 다양한 장애물을 만났지만 랭글러는 거침없이 헤쳐나갔다.

온로드에서는 투박함보다 부드러운 주행을 이어갈 수 있었다.

기존 랭글러는 온로드 구간 주행 시 서스펜션 자체가 너무 딱딱해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올 뉴 랭글러는 이러한 부분을 많이 개선한 듯했다. 올 뉴 랭글러에는 최신형 직렬 4기통 2.0ℓ 가솔린 터보엔진을 탑재했다. 최고출력은 272마력이다. 수동 시트의 불편함을 감수한다면 온·오프로드를 즐기기에 충분한 매력을 갖추고 있다.

국내에서는 4도어 가솔린 모델인 '올 뉴 랭글러 스포츠', '올 뉴 랭글러 루비콘', '올 뉴 랭글러 루비콘 하이', '올 뉴 랭글러 사하라' 네 가지 트림을 먼저 선보일 예정이다. 가격은 스포츠 4940만원, 루비콘 5740만원, 루비콘 하이 5840만원, 사하라 6140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ysw@

# 진에어 "AI 스피커로 항공편 확인하세요"

**음성안내 실시… 네이버 클로바 탑재**

진에어가 AI 스피커를 통한 음성 안내 서비스를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진에어는 네이버의 클로바가 탑재된 AI 스피커를 통해 진에어 항공편 출도착 조회, 수하물 규정, 탑승 수속 등의 문의에 대한 음성 인식 및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 클로바는 사람의 언어를 인식하고 분석해 고객의 질문에 필요한 답변을 전달할 수 있는 네이버의 인공지능 플랫폼이다.

기본적인 응답 프로세스는 고객이 AI 스피커에 음성 질문을 하면, 네이버 클로바가 질문 내용을 인식, 분석해 적합한 답변을 진에어 시스템에서 확인 후 AI 스피커를 통해 안내하게 된다. AI 스피커 음성 안내 서비스는 학습과정을 거쳐 더욱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네이버와 협업을 통해 다양한 문의에 답변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발도 진행할 예정이다.

진에어는 IT 기술을 활용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내 항공업계 최초로 도입한 위치기반 서비스, 네이버페이 간편 결제 서비스, 24시간 고객과 소통하는 챗봇 서비스 '제이드'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지난 3월에는 국내 항공사 중에서 가장 먼저 여객서비스 관련 시스템을 아마존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면 전환하여 네트워크 및 서버 비용을 절감했을 뿐만 아니라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관리 및 운영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 르노삼성 'SM6' 추석 특별프로모션

**주유권 등 경품 '풍성'**

르노삼성자동차가 9월 추석 황금 연휴를 위한 'SM6와 함께하는 한가위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4일 르노삼성에 따르면 SM6와 함께하는 한가위 특별 프로모션은 르노삼성 홈페이지에서 이벤트 신청 후 차량 출고를 완료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9월 18일까지 이벤트 신청을 진행한 뒤 영업점을 방문해 차량 출고를 완료한 고객 50명을 추첨해 20만원 상당의 GS 칼텍스 주유권을 증정하며, 당첨자는 9월 21일에 발표 예정이다.

이 외에도 추가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SM6 함께 하는 한가위 이벤트 신청 후, 르노삼성 홈페이지의 e-커머스 페이지인 'e-쇼룸'에서 SM6 온라인 구매 청약 및 차량 출고를 완료한 5명에게는 추가로 에버랜드 로스트 밸리 스페셜 투어권(유아동반 최대6인 기준) 경품을 증정한다. 해당 이벤트 당첨자는 10월 4일에 확인할 수 있다.

/양성운 기자